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왕국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들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떠난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간혹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한 왕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는 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왕으로 요아스가 1살 때 그의 할머니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의 대학살로 유다의 왕가에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이 때 자신의 고모인 여호세바와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성전에서 6년간이나 몰래 양육되었습니다. 요아스가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의 폭정에 대해 반기를 든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어 40년 간 통치하였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산당들은 대부분 산 꼭데기에 위치한 것으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산당들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 신들을 아주 많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이 있었지마는 대부분의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며 동시에 이방 신들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도 많은 수의 산당들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당이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산당을 볼 때에 거부감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당은 하나의 풍속이었고 관행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굳이 없앨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었

기 때문에 산당의 유무가 그렇게 걸림돌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당 없애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지만 기왕에 있는 산당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산당을 없애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을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기에는 왠지 찜찜한 부분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추측이 많이 반영된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12장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있을법한 추측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 수리가 필요한 것을 본 제사장들은 우리 성경에는 '아는 자'들이라고 되어있는 성전세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서 비용을 받아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이 명령이 있은 지 23년 동안 아무도 성전의 파손된 곳을 수리한 제사장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래된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 대제사장인 여호야다도 성전 돌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23년 후에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제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직접 드리도록 요구하였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가져다가 성전 문 앞에 놓아 두어 누구든지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 헌금을 직접 성전 수리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성전은 필요한 곳에 따라 수리하였으며 다행히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2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요아스가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허무하게 암살당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요아스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을까요? 그 답을 역대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이 좀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4장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를 찾아 와서 왕을 부추겼습니다.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헌금도 하였고 요아스도 성전의 수리를 명령하였지만 결국에는 성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아스와 백

성들은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를 죽이기로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 스가랴를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보여준 충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쳐들어 왔습니다. 아람 군대는 적은 수였고 유다의 군대는 큰 군대였지만 아람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물건들은 노략해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요아스도 큰 부상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일 때문에 요아스가 자는 동안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요아스를 반역하여 죽인 일의 전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였던 선한 왕 요아스가 마지막에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오늘 12장3절의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다의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너무나 쉽게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그의 이전의 신앙이 그저 들어서 알고 있는 신앙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행할 때에도 매우 수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이나 방치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열정은 없고 단지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멘토 역할을 하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한 순간에 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는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겁도 없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좋아 보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교회를 오래 다녀 습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능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분의 품 안에 거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